

高麗시대의 中國語 通譯에 관한 연구*

- 通譯官 選拔 養成과 名稱 問題를 中心으로 -

박 중 언**

<目次>

I. 서론	III. 高麗의 中國語 通譯官 選拔과 養成
II. 高麗와 주변 국가의 中國語 通譯 현황	IV. 高麗의 中國語 通譯官 名稱
	V. 결론

I. 서론

인류의 통역활동이 수 천 년 동안 각 민족 간의 政治·經濟·軍事·文化 등의 交流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통역의 역사를 연구해보면 역사 문헌에서 통역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역이 사회적으로도 줄곧 重視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¹⁾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반도라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항상 주변국과의 대외적인 관계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서, 古朝鮮부터 중국어 통역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문헌상으로 고

* 본 논문은 2011학년도 인제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보조에 의한 것임.

** 인제대학교 중국학부 부교수

1) 《朝鮮王朝實錄》 成宗 13년 司憲府 大司憲 蔡壽 등이 올린 상소를 통해 우리 역사 속에서 통역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가를 엿볼 수 있다. 상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서와 설인 따위와 같은 것에 이르러서는, 말을 전하여 타 이르고, 사령을 협의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니, 그 임무가 본래 가볍습니다 [至如象(譚)(胥)·舌人之類, 不過諭言語·協辭令而已, 其任固已輕矣].”

증할 수 있는 史料가 거의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간략하여 그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중국어 通譯史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古朝鮮부터 統一新羅시대까지 중국어 통역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본 논문은 古朝鮮부터 高麗시기 전까지의 중국어 통역 역사에 대해 기술한 <歷史文獻에 나타난 中國語 通譯에 관한 研究(1)>의 후속작업으로, 시기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中世에 해당하는 高麗시대의 통역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0세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는 高麗 주변으로 宋나라와 遼·金이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었다. 新羅에 의해 三國이 통일되었던 한반도는 後三國이라는 분열의 시기를 거쳐, 高麗에 의해 다시 통일 왕조를 이루게 되지만, 高麗의 입장에서 遼나라·金나라와 우호관계를 맺으면서도 宋나라와 긴밀한 외교관계를 유지해야 했으며, 잦은 전쟁과 복잡한 대외관계, 활발한 무역활동 중에서 언어 소통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였다.

우리나라의 中國語 通譯史에 있어서 高麗시대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제도적인 측면에서 高麗 이전과는 다른 변화를 보인다. 특히 高麗 말에 역사 문헌에 기록된 공식적인 중국어 통역관 양성기관인 譯語都監과 漢語都監, 通文館, 吏學都監, 司譯院 등과 같은 기관이 세워졌다. 비록 《三國史記》에 後高句麗 官制를 소개하면서 外國語 敎育과 관련하여 “又置史臺, 掌習諸譯語”라는 기록이 있지만, 이 기록에서 말하는 “諸譯語”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둘째, 통역 활동 영역의 확대이다. 高麗는 어느 때보다도 무역이 발달했던 시기로, 세계적으로 “코리아”라는 國名이 알려졌다. 통역의 활동 범위가 정치·외교 등 국가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무역경제·문화 방면 등 민간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었다. 이처럼 활발한 통역 활동은 朝鮮시기에 들어가면 司譯院이라는 양성기관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통역관을 양성하고, 공식적으로 과거제도를 통해 역관을 선발하게 된다. 셋째, 통역관의 신분상의 변화이다. 제도적으로 역관이 되기 위해서는 良人 이상의 신분이

어야 하고, 출신에 따라서 관리가 되더라도 7품까지 제한을 받았지만, 高麗 후기에 가면 역관의 신분이 상승되어 武班의 최고직까지도 오르거나, 文官이 맡았던 內侍의 직책을 맡기도 했다. 이것은 고려시대에 역관의 사회적 지위가 부분적으로나마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高麗시대 역관과 관련하여 기존 史學界에서 연구된 제도적인 측면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어 통역 활동과 관련된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여 고려시기의 通譯史를 기술한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따라서 우선 2장에서 당시 고려와 긴밀한 대외적 관계를 맺고 있었던 宋나라와 遼·金나라의 통역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고려의 중국어 통역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고찰할 것이다. 3장에서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통역관이 어떻게 선발되어 양성되었는지를 고찰하며, 특히 4장에서는 이전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었던 역관의 명칭 문제에 대해 《高麗史》의 기록을 중심으로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II. 高麗와 주변 국가의 中國語 通譯 현황

10~12세기까지 高麗시대 대외관계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이라는 관점에서 高麗를 중심으로 주변국가, 즉 高麗와 宋·遼·金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본 장에서는 중국어 통역과 관련된 고려와 송나라·요나라·금나라의 통역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상호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한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의 중국어 통역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기록을 찾기란 쉽지 않지만, 《宋朝事實》 권12의 기록을 통해 당시 통역의 상황을 개략적으로 이해하는데 참고로 할 수 있다.

“여러 번국들이 천자를 알현하는 규정이다. 서북 번국과 거란, 고려, 동남만, 서남이와 여러 외번국에서 조공을 드리러 온 자는 모두 승덕전에서

접대한다. 거란 사신이 서신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전에 들어와서, 북쪽을 향해 허리를 굽혀 절한다. 합문사가 내려가 서신을 받아 전으로 들어오면, 내사도지는 그것을 받아 열어본다. 통사사인이 사신을 인도하여 전에 들어오면, (사신은) 그 임금을 대신하여 꿇어 앉아 황제에게 절한다. 황제가 내사도지에게 물으면 모두 통사가 통역을 했다.....”²⁾

이 기록은 송나라 주변국 사신들이 황실의 천자를 접견할 때의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기록을 통해 통역의 존재와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그 중 특히 “通事傳譯”이나 “通事舍人” 등의 용어는 고려 등의 사신이 송나라 황제를 접견하는 현장에서 內侍都知와 사신이 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양측 통역이 존재했고, 통역활동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通事는 직위가 매우 낮아서 황제에게 직접 말을 할 수는 없었고, 舍人이나 閣門을 통해서 말을 해야 했다.³⁾

오늘날 영어가 국제적인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듯이, 고려시대에 중국어의 위상은 영어 못지않게 중요한 지위에 있었으며, 고려와 송나라는 특별히 긴밀한 외교적 관계를 유지했었다. 이는 《宋史》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北宋 대에만 고려가 송나라에 63차례나 사신을 파견했으며, 송나라도 고려에 24차례에 걸쳐 사신을 파견했다는 기록이 있다. 북송은 고려에게 많은 지원을 함으로써 원래 요나라·금나라와 가까운 외교 관계에 있었던 고려를 적절하게 중립을 지키도록 했으며, 동시에 송나라와 고려는 정치, 문화, 경제 등 분야에 있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⁴⁾ 그

2) 《宋朝事實》 권12: “諸蕃入朝皇朝之制. 西北蕃部及契丹·高麗·東南蠻·西南夷及諸外蕃國來貢者, 并對於崇德殿. 契丹使捧書函入殿庭, 北向, 鞠躬. 閣門使降受升殿以進, 內侍都知受而啓之, 通事舍人導使者升殿, 代其主跪問聖躬. 上令內侍都知報問之, 皆通事傳譯.....”

3) 《新唐書·禮樂志》나 《宋史·禮志》 등에도 외국 사신이 황제를 접견할 때의 예절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황제와 사신이 만났을 때 당연히 통역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문헌의 기록에는 통역관의 이름이나 그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다.

4) 黎難秋 주편, 《中國口譯史》, 青島出版社, 2002, 36쪽.

러나 이처럼 활발한 교류 이면에는 항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통역관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우선 송나라의 통역관련 상황을 살펴보면, 문헌에 통역과 관련된 다양한 名稱을 찾아볼 수 있으며, 그 職能도 세분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송나라가 주변 민족이나 외국의 사신을 접대하는 기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禮部에 主客을 설치하여 외국 사신들을 대접하는 일을 관장했고, 郎中과 員外郎이 그 일을 담당했다. 이는 唐나라의 제도를 계승한 것이다. 둘째는 鴻臚寺로, 각 나라별로 전담하는 기관을 따로 두고 외국과의 대외업무를 관장했다. 그 부속 기관으로 國信所와 禮賓院·都亭西驛·懷遠驛이 있었고, 이러한 기관에는 통역을 담당했던 통역관이 있었다. 그 중 특히 고려와 관련된 同文館과 管勾所는 고려 사신을 접대하던 기관으로, 송나라 熙寧 년간에 세워진 “同文館”은 원래 명칭이 “勾當同文館所”였다. 즉 고려와 송나라가 같은 漢字文化圈으로, 고려가 漢字를 사용하여, 같은 글을 쓴다는 의미에서 유래되었다. 음력 정월 초하루에 각국 사신들이 송나라 황실에서 개최하는 대 조회에 참석했는데, 고려 사신들은 梁門 밖 安州巷 同文館에 머물렀다고 한다. 셋째는 客省으로, 《宋史·職官六·客省》에는 五代의 제도를 계승한 客省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 기구는 南宋 초기에 東上閣門으로 병합된다.

고려와 송나라 간의 무역 교류는 정치 분야만큼이나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송나라의 민간 상인이 고려에 온 회수는 100회를 넘으며, 한 번에 수십 명에서 100여 명에 이르렀고, 1056년에는 240명의 대규모의 상인들이 온 일도 있다. 송나라의 사신이나 상인이 고려에 귀화한 일이 많고, 반대로 고려에서 송나라에 귀화하여 높은 관직에 오른 사람도 있다. 고려와 송나라 간의 무역이 얼마나 긴밀하게 이루어졌는가에 관해서 《高麗史》에 남아있는 기록을 살펴보면, 11세기부터 12세기 전반기(1012~1138)까지 127년 동안 고려를 방문한 송나라 상인의 횡수가 93차례나 되며, 그 중 25차례는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있다. 그리고 개경에는 송나라 상인들이 묵었던 清河館, 忠州館, 四占館, 利賓館이라는 숙소가 운영될 정도였다고

한다.⁵⁾

遼나라(916~1121)는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거란이 세운 나라로, 遼河 유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나라를 세웠다. 지리적으로 중국 북방의 거대한 지역을 차지하면서 漢族과 소수민족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통역 인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州 이상 官署에 번역을 전담하는 인원인 譯史를 설치했다. 또한 通事라는 명칭의 통역을 전담 인원을 두었고,⁶⁾ 唐나라나 宋나라처럼 인접 국가들의 사신들을 전문적으로 접대하던 “四方館”을 설치하고, 客省을 두었다.

당시 고려를 둘러싼 또 하나의 주변 국가인 金나라(1115~1234)는 遼나라와 마찬가지로 譯史나 通事라는 관직이 있었다. 외국에서 온 사신들은 주로 禮部에서 관장했으며, 요나라와 마찬가지로 客省을 설치하고, 그 예속기구로 宣徽院을 두었다. 《金史》 권57의 기록을 보면 “역인은 상경과 북경에 각 3명, 동경과 서경, 남경에 각 2명. 통사 2명을 두었다.”⁷⁾고 했으며, “고려·하국·회흘 역사 4명, 좌우 각 2명. 제부 통사 6명……”이라는 기록이 있다.⁸⁾ 이 기록에 따르면 金나라는 각 省과 部·京·州·部 모두 역관이 있었으며, 그 인원수는 각기 달랐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홍문관 교리가 정8품으로 經史를 校譯하는 일을 관장했고, 禮部가 釋道와 사방의 사신, 각 나라의 進貢 등의 일을 맡았으며, 또한 주로 역관들이 활동하던 영역이었다.⁹⁾

이상에서 살펴본 고려의 주변국가인 송나라와 金나라, 요나라는 당시

5) 한국역사연구회, 《개경의 생활사》, 휴머니스트, 2007.

6) 《黑韃事略》에 “譯而通之, 謂之通事.”이라고 했으며, 周密은 《癸辛雜識》에서 “譯者, 今北方謂之通事, 南蕃海舶謂之唐舶, 西方蠻獠謂之蒲義, 皆譯者之名也.”라고 했다.(馬祖毅 等著, 《中國翻譯通史》, 湖南教育出版社, 2006, 210-211쪽)

7) “譯人, 上京·北京各三人, 東京·西京·南京各二人, 通事二人.”(《金史》 권55)

8) “高麗·夏國·回紇譯史四人, 左右各二人. 諸部通事六人……”(같은 책, 권55)

9) 烏云格日勒, 寶玉柱, <宋遼金時期翻譯制度初探>, 《語言與翻譯》, 2010년 제4기, 55쪽 참고.

동북아 정세를 고려할 때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서로간의 교류를 위해서는 통역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제도와 기구를 갖고 있었다. 고려는 주변 국가의 영향을 받아 중국어 통역의 중요성을 인식했으며, 통역관을 양성하거나 관련기관을 설립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Ⅲ. 高麗의 中國語 通譯官 選拔과 養成

고려시기 역사문헌에 나타난 통역과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면 고려 成宗 14년(995) 거란어 학습을 위해 童子 10명을 파견한 기록과¹⁰⁾ 文宗 때 여진, 거란, 발해 通事 등의 역관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지만,¹¹⁾ 고려 초기에 외교나 통역을 담당할 독립된 기구의 설치나 통역관 양성에 관한 자료는 찾아볼 수가 없다. 특히 光宗 때부터 과거시험을 통해 관리를 선발했고, 당시 대외적 관계로 인해 현실적으로 통역관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중국어 통역관을 선발하여 양성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일까? 다음의 몇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첫째, 언어적인 이유를 들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중국과 같이 漢字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經書를 익힌 선비들은 중국인과 筆談으로 대화가 가능했다. 또한 오늘날과는 달리 당시 중국과 고려에서 사용하던 漢字의 발음이 매우 유사했다.

둘째,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력이 풍부했다. 아래의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唐宋 때 중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사람이 많았다. 《高麗史節要》 乙卯 6년(1015)의 기록에 따르면 “겨울 11월에 戶部尙書 張延祐가 졸하였다. 신라 말기에 그 아버지 儒가 吳越國에 피난하여 중국말을 익혀

10) “遣童子十人於契丹，習其語。”(《高麗史》 권3 世家 권3)

11) “[尙食局指諭南班員，客省承旨·孔目·都衙，女直丹渤海通事] 六石.”(《高麗史》 권80 志 권34)

서 돌아오니, 光宗이 여러 번 客省의 관원에 임명하여 매번 중국 사신이 올 때마다 儒를 시켜 접대하게 하였다. 延祐는 행정 사무에 능하여 중요한 관직을 역임하고 재간과 능력이 있다고 일컬어졌었다.”¹²⁾고 한다. 기록에서 張儒는 客省의 관리로 임명되어 통역을 맡았는데, 당시에는 중국에서 중국말을 익히고 돌아온 사람이 관원으로 발탁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따로 통역관을 양성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밖에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직접 유학생을 파견한 기록도 있다. 그 예로 《高麗史》 권2에 “이 해에 金行成을 宋에 보내어 國子監에 入學시켰다.”¹³⁾는 기록이 있으며, 이들은 귀국하여 직접 중국어 통역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귀화한 중국인들의 경우도 관료로 많이 발탁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高麗史》 권97 열전 권10 愼安之의 경우가 있다.¹⁴⁾ 고려 초기에는 통일 주체 세력이 거의 武將 출신이었고, 五代末 宋初에는 거란의 발흥으로 중국에 파견하는 유학생의 수가 감소하여 관리로 임명하여 외교문서를 담당하거나 통역을 맡을 만한 인물이 절대 부족했다. 따라서 귀화한 중국인들이 그 자리를 맡았으며, 그들은 주로 禮賓省이나 禮部, 閣(閣)門 등에서 사신을 접대하는 일을 했다.¹⁵⁾ 이처럼 귀화한 중국인이 외교 문서 뿐만 아니라 사신을 접대할 때 통역으로 활동하여 자체적으로 통역을 양성할 필요성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렇다면 고려시대 전문적으로 譯學을 교육시킨 기관은 언제부터 생겼

12) “冬十一月, 戶部尙書張延祐, 卒, 新羅末, 父儒, 避亂吳越, 習華語而還, 光宗累授客省, 每中國使至, 使儒, 僉接之, 延祐, 長於吏事, 踐歷華顯, 以幹能稱.”(《高麗史節要》 제3권)

13) “是歲, 高麗國人金行成始入學於國子監.”(《高麗史》 권2 世家 권2)

14) “愼安之, 字元老, 亦宋開封府人. 父脩, 文宗朝, 隨海舶來, 有學識, 且精醫術, 登第, 官至守司徒·左僕射, 叅知政事致仕, 諡恭獻. 安之事睿·仁二朝, 知水州, 爲政清肅, 吏畏民懷. 累遷兵部尙書·三司使·判閣門事卒. 容儀秀美, 性度寬弘, 臨事廉平. 善醫藥, 曉漢語, 凡移南北朝文牒, 多出其手.”(《高麗史》 권97 列傳 권10)

15) 박옥걸, 《高麗時代의 歸化人 研究》, 國學資料院, 1996년, 172쪽.

으며, 어떤 기관이 있었는가?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역학 교육기관으로는 譯語都監, 通文館, 漢語都監, 司譯院, 漢文都監 등이 있었다. 그러나 고려 초기에는 앞에서 언급한 이유 때문에 굳이 따로 역관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두지 않았고, 단지 필요에 따라 정식 과거의 형식이 아닌, 관련부서에서 시험을 통해 역관을 선발했다. 神宗 5년(1202) 4월 6일 禮賓省에서 역관을 試取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¹⁶⁾ 그 절차를 짐작할 수 있으며, 시험의 형식은 조선시대에 행해졌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⁷⁾ 이미숙(2003)은 역관의 試取를 禮賓省에서 실시하게 된 것은, 雜業을 해당 本司에서 試選하도록 하였기 때문이지만, 《高麗史》에서 譯科의 실시나 급제자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은, 譯科가 처음부터 설치되지 않았거나 雜業이 製述·明經 등 兩大業과 시기·장소·방법 등이 분리 취급되면서 選場에서 잡업이 제외되었기 때문이거나 역관이 다른 기술관보다 경시되어 撰者가 기록을 누락했던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선발된 역관은 예빈성을 비롯하여 閤門·掖庭局·軍部 등에 배치되었으며, 각 지방에도 파견되어 대외업무에 활동하였지만, 역관의 試取가 언제부터 실시되었는지는 알 수 없고, 이들이 국초부터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아, 과거제도가 실시된 光宗 이후에 이들에 대한 선발 시험도 실시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⁸⁾

그러나 고려 말에 이르러서 원나라는 대외적으로 폐쇄적인 외교정책을

16) “3월 정사일에 총재 崔誥과 승선 于承慶이 禮賓省에 앉아서 통역관 능력을 고시하였다[三月 丁巳 冢宰崔誥·承宣 于承慶, 坐禮賓省, 試取譯語].”(《高麗史》 권21, 世家 권21)

17) 조선시대의 시험방식은 漢語의 경우 《論語》·《孟子》·《大學》·《中庸》 등 四書의 경우 책을 펴놓고, 중국어 발음으로 읽고, 우리말로 번역하는 臨文講書의 방식과 《老乞大》·《朴通事》·《直解小學》 등의 책은 외워서 읽고 풀이하는 방식인 背講으로 시험을 보았다고 한다. 아마도 고려시대 통역관의 선발 시험도 이러한 형식을 벗어지는 못했을 것이다.(김구진·이현숙 譯, 《國譯通文館志》,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8, 75-78쪽)

18) 이미숙, <高麗時代 技術官 研究-醫官과 譯官을 中心으로>, 祥明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3, 103-104쪽 참고.

유지하게 되면서 고려와 원나라와의 외교관계가 점차 악화되고 국가차원의 사신 왕래를 제외하고 개인 간의 사적인 교류가 금지되었다. 따라서 이전에 유학생이나 승려, 상인들의 교류를 통해 양성되었던 통역 인원들이 줄어들게 되었고, 국가 차원에서 통역인원을 양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高宗 6년(1219)에 임시로 설치된 譯語都監에서 양성된 역관의 능력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따라서 忠烈王 2년(1276)에 처음으로 參文學事 金堦의 건의에 따라서 通文館이 설치되게 된다. 禁內學官 등(관아의) 參外의 관직에 있는 자로서 나이가 40살 미만 되는 자들에게 漢語(중국어를 가리키며, 이때에는 몽고어를 포함함)를 배우게 했다. 禁內學官이란 秘書(비서성), 史館, 翰林(文翰署), 寶文閣, 御書(어서원), 同文院으로, 式目(식목도감), 都兵馬, 迎送(영송도감)과 함께 禁內九官이라고 했다. 이것은 당시에 舌人들이 대개 미천한 신분 출신의 인물들이어서 통역, 전달할 때에 사실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간사스러운 마음을 먹고 제게 이익이 생기도록 하였기 때문에 參文學事였던 金堦가 건의하여 通文館을 설치하게 되었고, 후에 얼마 후 司譯院을 설치하여 漢語를 가르쳤다.¹⁹⁾

《高麗史》에 나타난 金堦의 건의를 살펴보면 “舌人들의 출신이 미천하고, 사람이 용렬하여 통역을 함에 있어서 사실 그대로 전하지 않는 일이 많았고 어떤 자는 나쁜 마음을 먹고 저에게 유리하게끔 일을 꾸며 놓았다. 그래서 김구가 왕에게 건의하여 通文館을 설치하고 禁內學官의 참외 인원으로 나이가 젊은 자들에게 漢語를 배우게 하였다.”²⁰⁾라고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 고려 후기 통역 상황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통역관의 신분 문제이다. “舌人率微賤庸劣”이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통역관은 출신이 높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는 통역의 수

19) “忠烈王二年，始置之，令禁內學官等參外，年未四十者，習漢語，[禁內學官，秘書·史館·翰林·寶文閣·御書·同文院也。并式目·都兵馬·迎送，謂之禁內九官。] 時，舌人多起微賤，傳語之間，多不以實，懷奸濟私，參文學事金堦建議，置之。後置司譯院，以掌譯語。”(《高麗史》 권76 志 권30)

20) “舌人率微賤庸劣，傳語多不以實，或懷姦濟私，堦獻議置通文館，令禁內學官參外年少者，習漢語。”(《高麗史》 권106 列傳 권19)

준 문제이다. “傳語多不以實”에서 말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달하거나 혹은 통역의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아서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셋째는 통역관의 선발 문제이다. “禁內學官等叅外, 年未四十者, 習漢語.” 구절에서 따로 통역을 선발하여 양성하기 보다는 기존에 관직에 있는 자들을 재교육 시켰다는 점이다.

恭讓王 원년(1389)에 사회 전반에 걸쳐 제도개혁을 시도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기술관을 양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十學教授官을 두었다. 十學에는 10가지의 분야가 있으며, 禮學은 成均館, 藥學은 典儀寺, 兵學은 軍候所, 律學은 典法寺, 字學은 典校寺, 醫學은 典醫寺, 風水·陰陽學은 書雲觀, 吏學은 司譯院에서 실제 교육을 담당했다. 이 중 사역원이 통문관에 이어서 역관을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 후 공양왕 3년(1391)에 漢語都監을 고쳐 만든 漢文都監으로 하고, 교수관을 두었다고 한다. 이 기관은 한어 교육을 위해 설치된 임시 관청이다.

IV. 高麗의 中國語 通譯官 名稱

중국의 역사 문헌을 살펴보면 古代시대부터 각 시대별로 통역관의 명칭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周 왕조는 동서남북 四方을 나누어 통역에 종사하는 사람을 “寄”와 “象”·“狄鞮”·“譯”이라고 불렀으며, 또한 이를 총칭하여 “舌人”이라고 했다. 西漢 때에는 “譯官”이나 “譯長”이 있었고, “譯人”이나 “譯語人”이라는 용어는 후세까지 계속 사용되었으며, 또 다른 용어로는 譯人을 “象胥” 또는 “寄象”이라고도 불렀다. 遼나라는 통역 관원을 “通事”라고 불렀으며, 金·元·明·淸까지도 모두 사용했고, 또한 翻譯을 전문적으로 하는 관원을 “譯史”라고 불렀다. 明나라 때의 번역을 관장하는 사람을 주로 四夷館의 “譯字生”이라고 했다.²¹⁾

21) 馬祖毅 등 著, 《中國翻譯通史》(고대부분 전1권), 湖南教育出版社, 2006, 1-

그렇다면 우리 문헌에서는 통역관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을까? 특히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고려시대에는 통역관을 어떠한 명칭으로 불렀을까? 기존 연구에서 譯官의 명칭에 관해 구체적인 고찰이 많지 않았으며, 일부 논문의 서론에서 간략히 언급한 적이 있다.

김수진(1981)은 논문의 서론 부분에서 고려시대에 사용되었던 통역관의 각종 명칭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通事는 북방민족 언어의 사용자(즉 북방에서의 역관의 명칭)를 말하는 것으로, 고려에서는 遼·金の 譯官에 대해 通事라고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蒙古語 역관을 지칭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譯語는 고려와 원나라 관계기에는 보통 譯語都監 출신의 역관을 칭할 때 사용된 것으로 보았으며, 그 이전에도 이 명칭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했다. 譯者는 譯語都監이 폐지된 뒤 역관에 대한 명칭이 혼용될 때 나타난 것으로, 譯語都監 출신이 아닌 역관들에게 그 이전에 사용된 적이 있는 명칭인 譯者를 붙인 것으로 보았다. 舌人은 通事·譯語·譯者들을 통칭하여 사용할 때에 지칭된 것으로 보았다.²²⁾ 그 밖에도 이미숙(2009)의 논문에서는 역관을 “譯語者·譯語·譯人·譯者·舌人·通事 등으로 호칭되기도 하였다.”라고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²³⁾

본 장에서는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역사 문헌인 《高麗史》를 중심으로 통역관과 관련된 명칭을 살펴보자 한다. 《高麗史》에 사용된 통역관 명칭을 조사해보면 譯語 26회, 譯者 16회, 譯人 1회, 舌人 6회, 象胥 1회, 通事 26회, 通事舍人 98회, 譯史 3회 등으로, 시기적으로 볼 때 고려 초기부터 후기까지 나타나지만, 또 어떤 명칭은 고려 후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아래에서 각 명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2쪽.

22) 金水珍, <高麗譯官考>, 碩士學位論文, 東亞大學校 大學院, 1981, 4쪽 참고.

23) 이미숙, <고려시대의 역관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제46집, 한국사상 문화학회, 2009, 203쪽 참고.

1. 譯語

譯語는 사전적 의미로 “다른 지역의 말이나 통번역을 거친 말, 통역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²⁴⁾ 우리 문헌에서 譯語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보이는 것은 《三國史記》에서 弓裔가 설치한 관직을 설명하면서 “又置史臺 [掌習諸譯語](또한 史臺를 설치했다[모든 외국어(譯語)의 학습을 맡은 기관])”라고 한 것이다.²⁵⁾ 여기에서 “譯語”는 관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현재 日本 宮內廳 書陵部에 보관중인 咸和 11년 中臺省 牒寫本(841년)에 渤海에서 파견된 105명의 사신 일행을 언급하면서 “二人譯語季憲壽·高應順”이라고 했다. 이것은 9~10세기 경 “譯語”는 여전히 두 가지 의미로 모두 사용되었음을 말해준다. 《高麗史》에서는 譯語가 모두 26번 사용되었으며, 다른 지역의 말(외국어)을 가리키는 뜻과 역관을 가리키는 뜻으로 함께 사용되었다. 구체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後置司譯院, 以掌譯語.(《高麗史》권76 志 권30)
- ② 遣定州郎將文選, 及將校譯語等(《高麗史》권9 世家 권9)
- ③ 黑水譯語加西老諭東蕃(《高麗史》권9 世家 권9)
- ④ 召投化宋人郎將陳養·譯語陳高·俞坦(《高麗史》권12 世家 권12)
- ⑤ 冢宰崔誥·承宣于承慶, 坐禮賓省, 試取譯語.(《高麗史》권21 世家 권21)
- ⑥ 時以譯語內殿崇班于光儒(《高麗史》권129 列傳 권42)

24) 唐나라 顧況의 <送從兄使新羅>라는 시에서 “沧波伏忠信, 譯語辨謳謠.”라고 사용된 것은 다른 지역의 말을 가리킨 것이며, 唐나라 賈島의 <送於中丞使回紇册立>이라는 시에서 “漸通青塚鄉山盡, 欲達皇情譯語初.”라고 한 것은 번역을 거친 말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宋나라 洪皓의 《松漠紀聞》권1에서 “譯語官”을 설명하는 조항에서 “金國之法, 夷人官漢地者, 皆置通事, 上下重輕, 皆出其手, 得以舞文招賄, 三二年皆致富.”라고 했으며, 스스로 붙인 주석에서 “(通事)即譯語官也, 或以有官人爲之.”라고 했다.(《漢語大詞典》“譯語” 조항 참고)

25) 《三國史記》 권40 雜志와 권50 列傳에서 두 번 언급되었으며, 동일한 내용을 말한 것이다.

- ⑦ 元宗朝, 以譯語, 累遷郎將.(《高麗史》권130 列傳 권43)
- ⑧ 譯語別將徐僞(《高麗史》권27 世家 권27)
- ⑨ 庚辰, 東寧府譯語中郎將丘千壽(《高麗史》권30 世家 권30)
- ⑩ 又執防護譯語鄭庇(《高麗史》권26 世家 권26)
- ⑪ 又執義州防護譯語鄭庇(《高麗史》 권130 列傳 권43)
- ⑫ 柳庇, 以譯語通事于元, 有功.(《高麗史》권57 志 권11)
- ⑬ 補譯語都監錄事(《高麗史》 권123 列傳 권36)

이상의 예문을 살펴보면 예문①에서 “譯語”를 외국어로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역관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그 기간 또한 1073년부터 1374년까지 매우 길다. 특이한 점은 譯語郎將(4회), 譯語別將(2회), 譯語中郎將(1회), 譯語通事(1회), 防護譯語(2회)처럼 무관직인 郎將(정6품)과 中郎將(정5품), 別將(7품)과 함께 사용되는 예가 많다는 것이다. 통역을 가리키는 通事와 함께 쓰인 것은 예문⑫의 “譯語通事” 단 한 차례이다. 그 이유에 대해 이미숙(2009)은 원나라와의 교류가 시작되면서 원나라의 通事가 무관직을 띠고 있었던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資治通鑑》의 기록을 보면 요나라 통사의 활동을 기록한 조항에 통사가 군대를 따라서 활동한 기록이 많이 보인다.²⁶⁾ 이는 외국과의 전쟁이 빈번하던 시대적인 상황에 군대 내 통역이 무관직을 겸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고려 초기 역관의 임무가 주로 사신을 접대하거나 대외적으로 사신으로 파견될 때 통역을 담당했다면, 고려 후기 원나라와의 군사적 관계가 빈번해짐에 따라서 무관직으로 통역하는 일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을 것이다. 사용빈도로 볼 때 고려시대 “譯語”는 통역관을 가리키는 용어로 자주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6) 《資治通鑑·後晉紀立》(945년)과 《資治通鑑·後漢紀一》(947년)의 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

2. 譯者

《高麗史》에서 譯者는 모두 14번 사용되었다. “者”자가 중국어 어법에 서 名詞나 動詞·形容詞·數詞 뒤에 사용되어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 때문에 아마도 통역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譯者”가 사용된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高麗史》에서 譯者라는 명칭이 사용된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熙奉國書, 如遜寧營, 使譯者問相見禮.(《高麗史》권94 列傳 권7)
- ② 見女眞屯聚, 遣譯者戴彥諱降(《高麗史》권96 列傳 권9)
- ③ 譯者以失禮告怡, 乃配蓮花島.(《高麗史》권121 列傳 권34)
- ④ 王遣譯者校尉崔奇(《高麗史》권28 世家 권28)
- ⑤ 譯者郭海龍, 還自京師言(《高麗史》권135 列傳 권48)

“譯者”의 사용 용례를 분석하면, 시기적으로 993년 서희가 거란의 소손녕과의 외교 담판에서와 1107년 윤관이 여진 정벌을 했을 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1219년 이후, 즉 고려 후기에 주로 사용되었다. 형식적으로는 “譯者” 두 글자만 단독으로 사용되어 통역을 가리키거나, “譯者+人名”의 구조로 사용되었다.²⁷⁾ 직책과 함께 사용된 용례는 예문④ 한 차례만이 있다.

3. 譯人

譯人은 《高麗史》에서 단 1회만 출현했다. 비슷한 시기의 중국 문헌에서 사용된 예를 살펴보면 《宋史·張方平傳》에서 “適上元張燈, 城門三夕不閉, 得邛部川譯人始造此語者, 梟首境上.”이라고 한 것과 원나라 말 시인

27) 일부 학자는 고종 6년(1219)에 설치되었던 譯語都監이 폐지된 후에 통역관을 譯者라 불렀다고 주장하지만, 문헌을 통해 볼 때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 高启가 쓴 <朝鮮儿歌>라는 시에서 “夷語何須問譯人，深情知訴離鄉怨.”라고 사용된 예가 있다. 《高麗史》에서 사용된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武藝都監[辛禡十年, 譯人中郎將郭海龍獻議, 置之.](《高麗史》권77 志 권31)

《高麗史》에서의 “郭海龍”이 출현하는 다른 예를 보면 “譯人”과 “譯者”자를 혼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예에서는 郭海龍 앞에 “譯人中郎將”이라고 표현했지만, 《高麗史》권135 列傳 권48에서는 “九月, 譯者郭海龍, 還自京師言[9월에 통역 郭海龍이 명나라 서울로부터 돌아와서 말하기를],”라고 했다.

4. 舌人

《高麗史》에서는 舌인이 모두 6번 사용되었다. 중국에서 舌인이 통역관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 것은 매우 오래되었다. 《國語·周語中》에서 “故坐諸門外, 而使舌人体委與之[그저 문밖에 앉혀놓고, 통역관을 시켜 먹을 것 한 마리를 통째로 전해주면 되오].”라고 했으며, 韋昭의 주석에서는 “舌人是 다른 나라의 뜻을 전달할 수 있으며, 상서의 관리이다[舌人, 能達異方之志, 象胥之官也].”라고 했다. 명나라 王志堅의 《表異錄·地理》에서는 “역어인을 상서라고 하며, 또는 설인이라고도 한다[譯語人曰象胥, 又曰舌人].”라고 했다. 《高麗史》에 사용된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雖詔使, 未嘗出城而迎. 舌人金台如元.(《高麗史》권65 志 권19)
- ② “.....舌人爲內侍, 自天固始.”(《高麗史》권28 世家 권28)
- ③ “至元十二年, 帝遣使日本, 我令舌人郎將徐贊及梢水三十人, 送至其國, 使者及贊等, 皆見殺.”(《高麗史》권29 世家 권29)
- ④ 時, 舌人多起微賤, 傳語之間, 多不以實, 懷奸濟私, 叅文學事金坵建議, 置之.(《高麗史》권76 志 권30)

- ⑤ 舌人率微賤庸劣, 傳語多不以實, 或懷姦濟私. 坵獻議置通文館, 令禁內學館參外年少者, 習漢語. 四年卒, 年六十八.(《高麗史》권106 列傳 권19)
- ⑥ 初以舌人知名, 所至有聲績. 嘗受帝命, 爲武德將軍·征東省理問官.(《高麗史》권107 列傳 권20)

《高麗史》에서는 世家에 2번, 志에 2번, 列傳에 2번이 사용되었고, 시기적으로는 모두 충렬왕 때 기록에서만 보인다. 그 밖에도 《高麗史節要》 권23(충렬왕 5년)에 “12월에 중찬으로 치사한 정인경이 졸했으며, 정인경은 성품이 근직하였고, 통역으로 이름이 알려졌다[十二月, 中贊致仕鄭仁卿卒, 仁卿, 性謹直以舌人知名].”라는 기록이 있다. 鄭仁卿은 忠烈王 때의 文臣으로, 蒙古語 통역관 출신으로 元나라에서 충렬왕을 시종했다. 따라서 이상의 기록을 종합해 볼 때, 舌人은 아마도 몽고어를 통역하던 관원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닌가 추정된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예문②처럼 충렬왕 4년에 이전까지 고려시대 권문세가의 자제나 儒生 등 문관들이 등용되던 內侍를 舌人이 맡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고려후기부터 통역관의 신분이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舌人이라는 명칭은 고려 이후에도 꾸준히 문헌에 보이는데, 《朝鮮王朝實錄》 숙종 37년과 영조 9년 기록에도 보이며, 《梅泉野錄》에서도 사용이 된 것을 보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²⁸⁾

5. 象胥

象胥라는 명칭은 《高麗史》에서 단지 한 차례만 사용되어 보편적으로 사용된 용어는 아니었다. 원래 象胥는 周官의 명칭으로, 秋官의 屬으로 夷

28) 《梅泉野錄》 제1권: “舌人安東峻, 以倭館訓導, 駐草梁十年, 仍其職, 推貨無厭, 結怨邊民, 有爲國生事之漸, 甲戌初被誅[통역관 安東峻은 일본공관의 訓導로 10년 동안 草梁에 있으면서 한없이 財利를 탐하여 邊民에게 원망을 사게 되어 나라에서 무슨 일이 생길 징조가 있었는데, 갑술년(1874)에 그는 처형되었다.]”

狄의 國使에게 왕의 말을 전달하는 직무를 담당했으며, 중국에서는 고대부터 꾸준히 각 나라의 사신들을 접대하는 관원이나 통역관을 나타내는 말로 쓰였다. 睿宗 13년(1118)에 鄭克永, 李之美 등을 송나라에 보내 權適 등에게 급제를 주어 돌려보낸 일에 대한 것과 송나라 황제의 친필 조서에 대해 사례하면서, 예종이 친히 표문을 지어 송나라에 보냈는데, 그 친서에 “말은 비록 象胥를 통해서 하더라도[通言雖托於象胥]”라고 했다.²⁹⁾ 아마도 《高麗史》에서 예종이 親書에서 象胥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중국에서 통역관을 나타내는 용어로 꾸준히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일반적으로 고려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였다.

6. 通事

通事는 《高麗史》에서 모두 26회 출현했다. 사전적 의미로는 “대외적으로 교류하는 일”³⁰⁾ 또는 관직명, 통역관을 가리킨다. 중국의 西晉때부터 通事와 舍人이라는 관직이 있었으며, 東晉때 두 관직을 합쳐서 하나로 通事舍人을 만들었다. 그러나 당시 “通事”는 특별히 통역관을 지칭하는 용어는 아니었다. 그러다가 명나라 때에는 이미 통역관원을 가리키게 된다. 그 증거로 원나라의 문헌인 《元史·百官志五》에서 “譯史·通事·知印各二人.”이라는 기록이 보인다.³¹⁾ 《高麗史》에서 通事가 사용된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蒙使六人先還, 遣通事池義深, 錄事洪巨源等(《高麗史》권23 世家 권23)
- ② 譯史占三名, 通事占三名, 知印占三名, 鎮撫占七名, 架閣庫管勾占一名, 鎮撫所令史二名, 爲占一名. 萬戶府首領官, 知事占三名, 令史四名, 各占

29) 《高麗史》 권14 世家 권14

30) 《周禮·秋官·掌交》에 “掌邦國之通事而結其交好”라고 했는데, 鄭玄의 주석에 “通事, 謂朝覲聘問也.”라고 했다.

31) 黎難秋 주편, 《中國口譯史》, 青島出版社, 2002년, 55쪽.

- 二名, 通事占二名, 譯史占二名(《高麗史》권29 世家 권29)
- ③ 以通事爲關里吉思腹心(《高麗史》권32 世家 권32)
- ④ 以譯語通事于元, 有功(《高麗史》권57 志 권11)
- ⑤ 六石十斗. [尙食局指諭南班員, 客省承旨·孔目·都衙, 女直丹渤海通事]
(《高麗史》권80 志 권34)
- ⑥ 己丑 遣工部員外郎俞元胥如金, 謝賀生辰, 閣門通事金澤賀正.(《高麗史》권15 世家 권15)
- ⑦ 爾令通事, 先往取貢(《高麗史》권134 列傳 권47)

《高麗史》에서 사용된 通事는 대부분 통역관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고려 후기의 通事는 주로 고려가 원나라와 관계가 긴밀해지고 나서 나타난다.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通事와 通事舍人이 通用된 것으로 보이지만, 고려 말의 통사는 완전히 통역만을 전담한 것이 아니고, 문서를 修答하는 通事舍人の 職能을 겸한 듯하다.

7. 通事舍人

通事舍人は 《高麗史》에서 모두 98회나 사용되었다. 원래 통사사인은 唐나라 때 中書省에 속했던 중6품의 관직으로, 궁 안에서 임금을 알현하는 일이나 上奏하는 일 등을 관장했다. 고려시대에도 통사사인은 유사한 직책으로, 閣門에 속한 정7품 관직이었다. 徐兢이 지은 《宣和奉使高麗圖經》 제7권에 통사사인과 관련된 기록이 언급되어 있는데, “또 賓客을 맡는 이가 있어 중국의 鴻臚卿에 비할 수 있으니, 大夫使者로 삼고, 또 國子博士·通事舍人·典書客이 있으며, 모두 小兄 이상으로 한다[又有掌賓客, 比鴻臚卿, 以大夫使者爲之. 又有國子博士, 通事舍人, 典書客. 皆小兄以上爲之].”라고 했다. 《高麗史》에서 사용된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使副大府少卿兼通事舍人楊昭業等(《高麗史》권2 世家 권2)

- ② 韓昌弼爲閣門通事舍人(《高麗史》권4 世家 권4)
- ③ 遣閣門通事舍人徐宣(《高麗史》권7 世家 권7)
- ④ 通事舍人, 各引從祀文武群官(《高麗史》권59 志 권13)
- ⑤ 春坊通事舍人等, 先入殿庭.(《高麗史》권66 志 권20)
- ⑥ 分左右立定, 通事舍人及東宮侍衛.(《高麗史》권66 志 권20)
- ⑦ ...十一年, 復改通禮門, 引進使改副使, 引進副使改判官, 通事舍人改舍人. 十八年, 復改閣門, 又改副使爲引進使, 判官爲引進副使, 舍人爲通事舍人... (《高麗史》권76 志 권30)
- ⑧ 通事舍人, 宣徽諸使使, 太子中允·中舍人(《高麗史》권78 志 권32)

《高麗史》에서 “通事舍人”이 사용된 예문을 모두 살펴보면, 단순히 궁 안에서 임금을 알현하는 일이나 上奏하는 일을 보조하는 역할, 임금이 참석하는 의례나 왕태자가 하례를 받는 의례, 조회의 의례에서 참석자를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관리의 명칭으로 사용된 것이 가장 많으며, 또한 통사사인이 여러 부서에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통역과 관련된 통사사인은 文宗 때 閣門에 정7품 通事舍인이 설치되었다고 하며, 그 밖에 문종 때 동궁관에도 정5품의 中舍인이 설치되었다. 仁宗 때에는 詹事府에 春坊通事舍人을 두었고, 제비주부에도 각 부마다 2명씩 통사사인을 두었다. 《宣和奉使高麗圖經》권36 海道3에 “이어 譯語官인 閣門通事舍人 沈起가 와서 同接伴 金富軾과 합류하였다[繼有譯語官閣門通事舍人沈起來, 參同接伴金富軾].”라는 한 기록에서, 閣門通事舍人 앞에 譯語官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通事舍인이 통역관인 것은 분명하다.

8. 譯史

譯史는 《高麗史》에서 모두 3회 출현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遼나라의 客省에 譯史와 通事라는 통역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제도를 모방한 듯 한다. 또 《元史》권86 <百官志>2에 고려시대 원나라에 의해 왜구 방어를 목적으로 고려에 설치되었던 군사 조직인 鎮邊萬戶府에 관한 기록이

나오다. 거기에서 “品秩은 正3品으로 대체로 萬戶 1員, 副萬戶 1員, 經歷 · 知事 · 提控案牘 · 譯史 · 通事 · 鎮撫 各 1員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군대 조직에서도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譯史는 번역 전담관, 通事는 통역 전담관으로 함께 활동했으며, 《高麗史》의 기록에도 《元史》와 마찬가지로 譯史와 通事를 나란히 언급하고 있다.

- ① 令史五員各三名, 譯史占三名, 通事占三名, 知印占三名, 鎮撫占七名, 架閣庫管勾占一名. 鎮撫所令史二名, 爲占一名.(《高麗史》권29 世家 권29)
- ② 萬戶府首領官, 知事占三名, 令史四名, 各占二名, 通事占二名, 譯史占二名.(《高麗史》권29 世家 권29)
- ③ 譯史二人, 通事二人(《高麗史》권76 志 권30)

《高麗史》에서 사용된 “譯史”는 고려 말 원나라의 영향력 하에서 사용된 용어로 볼 수 있지만, 조선 초기에도 사용이 되었다. 《朝鮮王朝實錄》太宗 2권 1년(1401) 復興君 趙胖의 졸기에서 “復興君 趙胖이 죽었다. 반은 豐海道 白州 사람으로, 贈參贊 趙世卿의 아들이다. 나이 12세에 세경을 따라 燕都에 들어가서 從姊의 남편인 段平章의 집에 있으면서, 드디어 한문을 배우고 겸하여 蒙古의 글과 말을 통하였다. 丞相 脫脫이 한번 보고 기이하게 여기어 아뢰어서, 中書省 譯史로 불러 썼다.”³²⁾는 기록이 있다.

V. 결 론

본고에서는 高麗시기의 역사문헌인 《高麗史》를 중심으로 당시 고려의

32) 《朝鮮王朝實錄》太宗 권2: “復興君趙胖卒. 胖, 豐海道白州人, 贈參贊世卿之子. 年十二, 從世卿赴燕都, 主從姊夫段平章家, 遂學漢文, 兼通蒙古書語, 丞相脫脫一見奇之, 奏辟中書省譯史.”

중국어 통역에 관해 고찰했다. 우선 고려와 그 주변국가의 통역제도가 어떠한 상황이었으며, 고려에서는 어떻게 통역관을 선발하여 양성했고, 특히 통역관의 명칭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상세히 살펴보았다. 10세기 이후 고려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는 매우 복잡한 대외관계 속에서 각 나라마다 다른 언어를 가진 국가와의 교류를 위한 통역관과 기구가 있었고, 고려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고려 초기에는 중국어 통역관을 선발하는 과거시험이나 양성기관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중국과의 빈번한 交流나 留學을 통해 중국어를 익힌 사람들이나 귀화한 중국인이 관리로 선발되어 통역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고려 후기에 이르러 원나라의 대외정책의 변화로 역관을 양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직접 譯語都監이나 漢語都監·通文館·吏學都監·司譯院 등의 기관을 세워 인재를 양성했다. 《高麗史》에서 역관을 가리키는 명칭으로는 사용된 용어로는 譯語 26회, 譯者 16회, 譯人 1회, 舌人 6회, 象胥 1회, 通事 26회, 通事舍人 98회, 譯史 3회 등이 있으며, 시기적으로 보면, 고려 초기부터 후기까지 고루 나타나지만, 또 특정한 명칭은 원나라와의 교류기인 후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오늘날 중국과의 교역이 날로 확대되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중국어 통역이 점차 중시되는 상황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중국어 통역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필자는 중국어 通譯史에 관한 연구가 통역이라는 분야를 학문적으로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리라 믿으며, 향후 더욱 많은 학자들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參考文獻>

歐陽脩·宋祁 著, 《新唐書》, 中華書局, 1975.

김구진·이현숙 譯, 《國譯通文館志》,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8.

- 김부식 著, 《三國史記》, 古代史, 2009.
- 김수진, 《高麗譯官考 -麗元關係를 中心으로-》, 東亞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1.
- 李攸 著, 《宋朝事實》, 中華書局, 1985.
- 馬端臨 著, 《文獻通考》, 中華書局, 2011.
- 馬祖毅 등 著, 《中國翻譯通史》, 湖南教育出版社, 2006.
- 박옥걸, 《高麗時代의 歸化人 研究》, 國學資料院, 1996.
- 박용운, <고려시기의 통문관(사역원)에 대한 검토 -한어도감·역어도감·이학도감·한문도감과도 관련하여->, 《한국학보》 제31권 3호, 일지사, 2005.
- 박용운, 《高麗時代官階·官職研究》, 고려대학교출판부, 1997.
- 司馬光, 《資治通鑑》, 中華書局, 2011.
- 宋濂 著, 《元史》, 中華書局, 1976.
- 송춘영, <高麗時代의 譯學教育>, 《대구사학》 35, 大邱史學會, 1988.
- 송춘영, 《고려시대 잡학교육연구》,螢雪出版社, 1998.
- 신천식, 《고려교육사연구》, 경인문화사, 1995.
- 沈約 著, 《宋史》, 中華書局, 1974.
- 黎難秋 主編, 《中國口譯史》, 青島出版社, 2002.
- 烏云格日勒·寶玉柱, <宋遼金時期翻譯制度初探>, 《語言與翻譯》 2010년 제4기, 2010.
- 王雲海, 《宋會要輯稿考校》, 河南大学出版社, 2008.
- 이미숙, <高麗時代 技術官 研究 -醫官과 譯官을 中心으로>, 祥明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3.
- 이미숙, <高麗時代 譯官 研究>, 《한국사상과 문화》 46권, 2009.
- 陳少豐, <試論宋代中外交流中譯語的職能>, 《臨沂大學學報》 제34권 1기, 2012.
- 최정환, 《<高麗史>百官志의 研究 -譯註<高麗史>百官志-》, 景仁文化社, 2006.

- 한국역사연구회, 《개경의 생활사》, 휴머니스트, 2007.
洪皓, 《松漠紀聞》, 臺灣商務印書館, 1983.
황현 저·조준호 옮김, 《梅泉野錄》, 지만지고전천줄, 2008.
脱脱 著, 《金史》, 中華書局, 2011.

웹사이트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高麗史》, 《高麗史節要》, 《高麗圖經》, 《朝鮮王朝實錄》)

<中文提要>

本文以高丽时期的历史文献《高丽史》为中心, 考察了高丽时期的汉语口译以及当时高丽和周边国家的口译制度和口译官的选拔和培养, 其中, 口译官的名称及其相关内容是重点考察对象。10世纪以后, 在以高丽为中心的东北亚, 对外关系非常复杂, 为了跟操不同语言的国家进行交流, 已经拥有了口译的人力和制度, 而高丽则从制度层面接受了中国的影响。高丽初期, 选拔汉语口译官的科举考试和培养机构还没有独立出来, 但是随着跟中国交流和留学的频繁, 熟悉汉语的人和归化的中国人开始被选为官员从事口译活动。但是, 到了高丽后期, 由于元朝对外政策的改变, 培养译官的必要性开始凸显, 于是直接设立译语都监、汉语都监、通文馆、史学都监、司译院等机关培养专门口译人才。高丽时代在《高丽史》中指称译官的用语有: 译语26次, 译者16次, 译人1次, 舌人6次, 象胥1次, 通事26次, 通事舍人98次, 译史3次。虽然这些用语从时间上来看, 从初期到后期出现得不太均衡, 但是特定的名称是在跟元朝交流的后期才集中使用的。

Key Words : 中國語(Chinese), 通譯(interpretation), 通譯史(history of interpretation), 高麗(Koryŏ), 宋(Song Dynasty)